

2013년 이란 대선 경과 및 전망

작성자 : 박재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작성일 : 2013년 6월 14일

■ 6월 14일에 예정된 제11대 이란 대통령 선거에 보수·실용보수·중도 성향의 후보 3인이 경합을 벌이고 있음.

- 당초 가장 보수적인 사이드 잘릴리(Saeed Jalili)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현재 보수파 사이드 잘릴리, 실용보수파 모하마드 칼리바프(Mahammad Qalibaf), 중도파 하산 로우하니(Hassan Rouhani)가 경합하는 3강 구도임.¹⁾
 - 헌법수호위원회(Guardian Council of the Constitution)는 후보 적격 심사를 통해 686명의 예비 후보 중 8명만 승인하였으나 보수파와 개혁파 후보가 각 1명씩 사퇴하여 최종 후보는 총 6명임.²⁾
 - (보수파) 잘릴리 후보는 정통 보수파의 지지를 얻고 있으나 강경한 핵 협상 정책으로 인해 대이란 제재가 강화되고 경제는 악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칼리바프 후보는 테헤란 시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행정 능력이 확인되었으나 전국적인 지지 기반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중도·개혁 연대) 개혁파 후보인 모하마드 아레프(Mohammad Aref)가 사퇴하고 중도 성향의 라프산자니(Rafsanjani) 전 대통령과 개혁 성향의 하타미(Khatami) 전 대통령이 로우하니 후보를 지지함에 따라 유력 후보로 부상함.

표 1. 2013년 이란 대선 최종 후보

후보	성향	경력
사이드 잘릴리(Saeed Jalili)	보수	현 핵 협상 대표
알리 아크바르 벨라야티(Ali Akbar Velayati)	보수	전 외교부 장관, 최고지도자 외교 고문
모하마드 바케르 칼리바프(Mahammad Baqer Qalibaf)	보수	현 테헤란 시장
모호센 레자이(Mohsen Rezai)	보수	전 혁명수비대 사령관
하산 로우하니(Hassan Rouhani)	중도	전 핵 협상 대표
모하마드 가라지(Mohammad Gharazi)	중도	전 통신부 및 석유부 장관

자료: 각종 언론 보도 취합하여 저자 작성.

- 6월 14일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6월 21일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

1) 이란에는 정강정책을 가진 정당이 없으나 정치 성향에 따라 크게 보수파, 실용파, 개혁파로 분류 가능함.
2) 중도·개혁 진영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았던 라프산자니(Rafsanjani) 전 대통령과 아흐마디네자드(Ahmadinejad) 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에스판디아르 라힘-마샤이(Esfandiar Rahim-Mashaie) 등은 후보 적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함.

로 결선 투표를 실시할 예정임.

- 이란 반관영 언론사 메흐르(Mehr)가 보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칼리바프(17.8%), 로우하니(14.6%), 잘릴리(9.8%)의 지지율이 모두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부동층은 30.5%에 달함.³⁾
- 이번 대선의 주요 변수 중 하나는 투표율로, 보수파 지지 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거 참여가 저조한 청년 및 중도·개혁 지지 세력의 투표율이 올라갈수록 로우하니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높아짐.

■ 이란 경제는 당분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나 이르면 내년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후보들은 핵 프로그램이 주권국가가 갖는 고유의 권리이며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현행 핵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현재 경제난의 주요 원인을 핵 프로그램에 부과된 제재가 아닌 아흐마디네자드 정부의 행정능력 부족과 정책 실패라고 지적함.
- 국제사회는 이러한 이란의 기본 정책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대이란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분간 제재 여파로 인한 경기 악화가 예상됨.
 - 미국은 7월 1일 발효되는 「2013년 국방수권법」과 「행정명령 13645」를 통해 철강 등 특정 물자(certain materials)와 자동차 산업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대이란 판매, 공급, 이전을 제한할 예정임.⁴⁾
 - 이란은 경제제재로 인해 2012년 GDP 증가율이 -1.9%를 기록하였고 연평균 리알(rial)화 가치가 전년대비 54.3% 폭락하였으며 연말 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6.9%로 급등하는 등 극심한 경제난을 겪음.⁵⁾
- 그러나 이란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점차 적응하여 이르면 내년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IMF에 따르면 2013년 이란의 GDP 증가율은 -1.3%로 예상되어 전년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지만 2014년에는 1.1%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⁶⁾

3) Foroohar, Kambiz & Ladane Nasseri (2013, Jun 12). Ex-Presidents Back Rohani, Boosting Reformists Chance in Iran. Bloomberg.

4) 특정물자는 △귀금속(precious metal) △흑연, 알루미늄·철 등 원자재 혹은 반제품 금속(semi-finished metals), 석탄,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품목은 차후 미국 정부가 결정하여 발표할 예정임. The White House (2013, June 3). Executive Order -- Authorizing the Implementation of Certain Sanctions Set Forth in the Iran Freedom and Counter-Proliferation Act of 2012 and Additional Sanctions with Respect To Iran.

5) Global Insight (2013, Jan 10). Iran: December consumer inflation climbs to 37% y/y in Iran.

6) IMF (2013).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3. p. 62.